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19~2015.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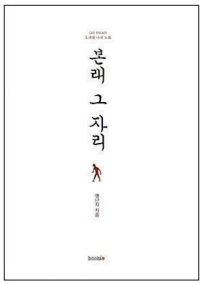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기적의명상치료	베디아일랜드 불광출판사	베디아일랜드 불광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윤희근·김현호	유희근·김현호	8	아담법사-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 스님	법륜 스님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9	무비스님의전심법요강설	무비	(주조계종출판사)
5	이야기들담은사찰법상	이경애	아름다운연	10	황제내경과생명과과학	남희근	부키



“無求 씩으며 욕망의 끈 놓자 삶의 시야 확 트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본래 그 자리
맹난자 지음
복인 펴냄
1만 8천원

한국 수필 문단의 원로 맹난자 수필가(73·사진)가 펴낸 수상집은 제목부터 범상치 않다. <본래 그 자리>이다. 붓가는데로 쓴 수필이 아니라 일종의 ‘화두’ 같다. 일반 수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 책은 ‘한 인간이 존재의 부름에 어떻게 답했는가’ 하는 기록이다. 그 응답은 단박에 깨진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아니다. 전 생애에 걸쳐 한발자욱씩 깨쳐간 ‘점오점수(漸悟漸修)’이다. 또한 이는 언어도단의 비약이 아니라, 철저히 언어에 의지해 언어를 넘어선 ‘문자반야(文字般若)’인 것이다. 돌고 돌아 와보니 결국 ‘본래 그 자리’라는 깨달음의 순간 터져 나오는 ‘와지일성’을 이치럼 책 제목으로 쓴 저자의 문학적 성취는 가히 주목 받을만 하다.

책은 저자가 지금껏 살면서 순간순간 마주친 여러 질문에 대해 선인들 및 현존 철학자와 사상가, 예술가와 과학자 등의 저서를 읽고 중요 구절을 노트에 옮기며 스스로 답을 찾은 과정을 기술했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종교, 철학과 사상, 인류학과 우주과학 등 여러 분야 명저를 섭렵한 것을 토대로 오랜 동안 연구한 <주역>과 <금강경> 등 불교 관련 책을 기본으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해안과 사유를 펼쳐 보인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새가 나뭇가지를 옮겨 앉듯, 이리저리 건너편 생각의 지도를 추려보며 책 한 권이 되었다. ‘오래된 나의 노트’에는 끄적거리지만 해답 없는 문제와 골목진 인생에 대해 알고 싶은 물음들이 많았다”며 “존재란 무엇이고, 영혼은 과연 있는가서 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 그 일귀하처(一歸何處)가 궁금했다. 그래서 선인들의 철학과 사상을 참고해 한 가지씩 답을 담아 보았다. 이 글들은 문예적인 산문이 아니라서 ‘예제’라고 이름 붙였다. 어린 왕자가 지구를 다녀간 포물선처럼 이것은 지상에서의 내 시간 체험이 살비늘을 털어내듯, 속제 한 듯 훌개분하다”고 그간의 힘든 작업 과정을 내비쳤다.

수필가이지만 저자 맹난자씨는 죽음과 인간의 근본체질 등에 관한 전문가다. 세계 명 작가들의 묘지를 둘러 보고 쓴 기행문 <인생은 아름다워

라>, 동양 고전인 주역을 알기 쉽게 해석한 <주역에 길을 묻다> 등이 그 증거물들이다.

이는 저자의 슬픈 가족사와도 무관치 않다. 저자는 9세때 6·25 피난길서 여동생을 흰 천에 싸서 허무하게 보내야 했다. 갓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다시 3살 아래의 남동생을 뇌염으로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실직에 장남까지 잃어 실의에 빠진 아버지는 야주만 들면 ‘한 많은 미아리고개’를 탄식처럼 불렀다. 저자에게겐 암흑기였다. 서문치는 그리움 때문일까? 고등학생인 저자는 틈날 때마다 미아리 공동묘지를 찾아가 동생 무덤에 기고대고 누워서 책을 읽다가 돌아오곤 했다. 겨우 직장을 얻은 아버지마저 잡적하자, 저자는 졸지에 가장이 됐다. 낮 나간 어머니와 어린 세 동생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휴학계를 내고 서울시청서 촉탁근무를 했다. 꿈을 접고 실의에 빠져 있던 대학 3학년 저자에게 첫 번째 깨달음의 인연이 찾아왔다. 뇌허 김동화 박사였다. 정각사서 열린 <금강경> 강의에서 김동화 선생은 칠판에 “유구(有求)면 유고(有苦), 무구(無求)면 무고(無苦)”를 썼다. 저자는 그것을 마주대할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을 본 순간 벼락 치듯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 가슴속 명울들이 그대로 과거에 꽂힌 듯 녹아내렸다. 담장이 무너지듯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허물어져 갔다. 움켜쥐던 것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무구(無求)를 씩으며 욕망의 끈을 놓아버리자 갑자기 안개가 걷힌 듯 시야가 확 트여왔다. 아아 이때부터 놓아버리는 습성을 익히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한다. 이때부터 저자는 불행 속에서도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업친데 답친격으로 그해 여름 어머니 마저 돌아가셨다. 의사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선생은 “자살이 아닐까?” 하는 병어리 병가슴을 오래도록 앓았다.

이후로 저자는 문학적 삶의 위로를 찾았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작가들의 절망으로 자신의 슬픔을 치유하면서 인생을 쓰다듬는 습관”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저자는 수십년동안 세계의 대 문호들 묘지를 찾고, 그들이 간헐던 정신병원이나 자살 현장을 뚫으며 그들의 삶의 궤적에 전착했다. 그리고 저자는 깨달았다. “어떤 삶도 인생에는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느 것이라도 이상한게 아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누구나 각 개인의 가슴을 열면 흉터 몇 개쯤은 지니고 살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자는 문학으로 극복한 셈이다.

저자가 책에서 거론한 총 11장의 주제는 ‘슬픔’ ‘고통’ ‘마음’ ‘신’ ‘죽음’ ‘자연’ ‘주역’ 등이다.



인간의 본질 꿰뚫고 인생 진리 전해
‘슬픔’ ‘고통’ ‘죽음’ 등 11개 주제 거론
저자, 환지본처의 해답 <주역>서 찾아

이중 제3장 <슬픔에 대하여>를 펴보자. “병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자기의 넋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란 프루스트의 말을 되새긴 저자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슬픔의 근원과 실체를 탐구한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고리키와 휠더린, 두보와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슬픔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았다. 이들 작가와 시인들은 타고난 슬픔으로 작품을 빛내는 데 사용했음을 발견한 저자는 발견한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려 “슬픔은 인간이 가진 정서 가운데 최고의 것이고, 동시에 모든 예술의 전형이며 시금석임”을 언급하며 슬픔을 슬픔으로 승화시킨 경우를 밝힌다.

제4장 <고통에 대하여>도 현대인들이 눈여겨 읽을만하다. 저자는 책에서 고통 극복의 정의를 설명한다.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끝내 고통을 못 넘지만 고통 속으로 들어가 시련을 극복한 사람은 오히려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되돌아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고타라 시다르타 등 위인들의 예를 인용한다. 한 나라의 태자로 태어난 시다르타

는 6년간의 극단적 고행으로 붓다가 됐고, 잃어버린 청력을 듣고 불법의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 조실부모하고 가난했지만 학문에 뜻을 둔 공자 등의 일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내가 남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화(禍)’요, 남이 나를 일그러뜨리는 것은 ‘복(福)’”이라고 부연한다.

책 제목과 연관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짧은 글들을 간추린 6장 <존재에 대하여>를 권한다. 인간 존재를 ‘색수상행식(色相行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는 불교의 인간관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불교 교리를 인용해 “마음은 6근, 법은 6진, 몸은 허깨비, 모든 법은 거짓 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아니니 어디에 내가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머리를 시작한 저자는 제 9장 <죽음에 대하여> 편에서 “예수는 부활로 영생을 약속하고, 붓다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불생불멸의 진아를 깨달을 것을 권한다. 도가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으로 바라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등 각종교서 보는 죽음과 에피쿠로스, 토마스 카라일, 플로티누스, 주제 사라마구, 몽테뉴 등 서양의 유명 철학자들이 실파한 죽음에 대해 저자도 함께 고민한다. “늙는다는 것, 이는 서서히 자살하는 것”이라는 톨랑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통과와 레를 거쳐 돌아가게 될 ‘환지본처’의 해답을 주역서 찾고 있다. 모든 자연현상은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유기적 변화의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무(無)는 곧 일(一)이다”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귀결짓는다. 문학이라는 기본 토양위에 철학, 종교, 인생 등을 버무린 맹난자 수필가의 이번 책은 삶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저자 맹난자 수필가는?
서울서 태어나 숙명여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료했다. 1969년부터 10년 동안 월간 <신행불교> 편집장을 지냈으며 1980년 동양문화연구소장 서정기 선생에게 주역을 사사하고 도계 박재완 선생과 노석 유중엽 선생에게 명리를 공부했다. 2002년부터 5년 동안 수필 전문지인 <예제(문예)> 발행인과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하고, <월간문화> 편집위원과 저하철 게시판 <종경소리>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들> <라데팡스의 불빛> <나 이대로 좋다>, 선집 <행과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있으며,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을 기행 <남산이 복산을 보여 웃네>와 개성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작가 묘지 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등이 있다. 현재는 한국수필문학진흥회 고문, <예제(문예)> 편집고문, <문헌나무> 자문위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상벌제도위원장으로 있다.

여행기 안에 녹여낸 뉴욕과 승려 스토리



부처와 아침을
클렌드 메릴로 지음
김선희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펴냄
1만 3800원

“세실리아가 자라서 일어나자 옆에 있던 남지도 일어났는데, 왠지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세실리아가 이제 달라이 라마와 사귀는 중인가 보군.’ 막상 가까이 가니 그렇지 않았다. 이 남자의 행동거지는 어찌 보면 평화로운 승려라기보다는 장거리 트럭운전자 같았다. 세실리아는 긴 히피 스커트 자락을 펄럭이며 다가오더니 나를 따뜻하게 안고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이윽고 서로 떨어졌을 때, 세실리아는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오빠, 내 구루셔, 불야 린포체라고.’

린포체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치마 같은 옷자락 속에서 못이 박힌 두터운 손을 꺼내, 으스러질 듯 힘 있는 악수를 건넸다. 세실리아가 발걸음 상기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기절초풍할 말을 했다. “오빠, 린포체 구루도 노스 다코타에 갈 거야.” 당연히 나는 웃음을 참았다.”

오도 링글링은 뉴욕의 잘나가는 출판사 편집장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으로 가는 여행에 자신의 구루인 심홍색의 낡은 승복을 입은 승려 불야 린포체와 함께 가도록 했을 때 그의 평화롭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승려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지만, 자신도 즐기고, 낯선 이방인을 좀 서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는 길에 ‘미국식 즐거움’을 보여주기로 작정한다. 오도는 그와 함께 고향인 노스 다코타의 농장까지 가는 길에 허쉬 초콜릿 공장과 불림장, 미니골프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린포체의 세계관을 엿보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책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여행기 안에 뉴욕과 승려라는 캐릭터의 등장으로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심리적인 변화를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두 주인공이 불림과 미니골프를 치거나 초콜릿 공장에 견학하는 단순하고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녹여내는 한편, 승려의 강연회나 요가 수업 등 진지한 상황을 번갈아 배치하여 이야기 전개의 강약을 살려 읽는 재미를 주었고, 매일 아침 한 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상황을 넣어줌으로써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레 주인공의 심리변화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였다.

주인공 오도처럼 중년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된 인생의 전환점은 정말 크나큰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담하고, 때로는 농담처럼 웃으며 받아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도와 린포체처럼 아침을 먹으며 던지는 질문과 답처럼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이다. 김주일 기자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쉽게 윤회를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도를 보인 원효성사의 논서!

- 종교의 마지막 논서 -

원효의 무량수경중요

정목스님 번역·해설 | 신국판 | 양장 | 흑백 | 384쪽 | 20,000원

오공골 백승(白승)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148쪽 | 14,000원

원인론과 불미학을 번역·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역역 | 신국판 | 양장 | 25 | 348쪽 | 20,000원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힘을 체험케 하는 묘한 논서
현세에 안심을 얻고 정도를 감득해 묘관찰지를 증득하는 법

『무량수경중요』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을 원효성사의 깊고 넓은 지혜로 해설한 보배로운 저술이다. 염불수행법, 보리심, 정정취, 부처님의 지혜 등, 신행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은 염불로 지혜를 성취하여 오락약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범부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성사의 가르침을 우러러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자비광명의 은혜를 입어 안심과 희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중요』는 ‘종교의 마지막 논서’이다.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과 실상, 범부와 성인의 세계관, 철학과 종교의 관계, 성자의 지혜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원 ☎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tapa) 비물교소통 ☎ 02-2632-8739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Himalia를 넣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질감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